

게임하며 불교공부... “정말 즐거워요”

교법사단 ‘新성불도놀이’ 개발 학습효과 성공적... 퍼즐·보드게임 등 인기 상승

11월 6일 서울 동국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종교수업 시간. 권진영 교법사는 지루한 법문을 하는 대신에 놀이도구를 집어 들었다. 전국교법사단이 최근 보드 게임 형식으로 개발한 ‘新성불도놀이’.

“애들이,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모둠 짜라. 오늘은 이걸 갖고 노는 걸로 수업을 대신한다!” “와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삼삼오오 처음 하는 놀이에 빠져들었다. “앗! 나 성범죄자에 걸렸어!”라고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데굴데굴 구르며 웃는다. “웃지 마, 넌 축생이잖아.” “어서 나처럼 반야공선타고 성불하라우.”

저마다 주사위를 굴리며 왁자지껄하게 외친다.

게임은 육도윤회 수레바퀴가 그려진 커다란 종이판 위에 각자 말을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며 진행한다. 일간제 1면에서 시작해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천상계로 가기도 하고 축생계나 지옥계

로 떨어지기도 한다. 각 세계마다 연꽃 칸이 몇 개씩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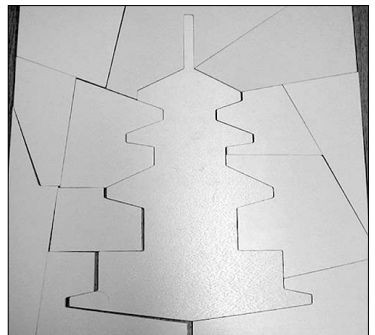
이 칸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 수행 점점에서 통과, 곧바로 성불에 이를 수 있다. 간단한 게임이지만 교육효과도 만만치 않다. ‘오계를 말하시오’ ‘삼보를 말하시오’ 등의 쉬운 과제도 있지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

반년 넘게 종교수업을 들으면서도 ‘성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게임을 한번 하고서 ‘불교교리에 재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지옥은 케케묵은 얘기’라고 믿던 나경이(14)는 ‘육도윤회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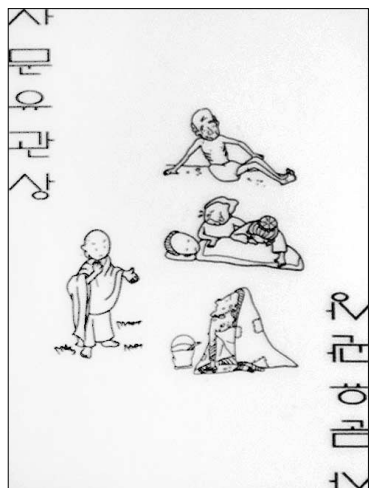
新성불도 놀이는 전국교법사단(단장 김남일) 소속 권진영, 김덕진, 김윤경 교법사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개발한 불교교육용 교구교재다.



서울 동대부여중 1학년 4반 학생들이 11월 6일 종교수업시간에 주사위를 굴리며 新성불도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된 ‘탑 퍼즐’·퍼즐을 완성하면 석가탑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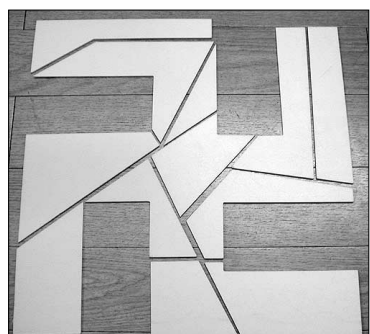
서울 영화사가 자체 제작해 불교교구로 활용하고 있는 ‘팔상성도 카드’.

불교문화를 응용해 어린이·청소년 심성을 개발하고 쉽고 재미있는 불교교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교구교재가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만)자퍼즐’과 ‘탑 퍼즐’이 개발돼 전국교법사단 심성수련회에서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 퍼즐들은 종립 광동중 양승순 교사가 교법사단에 개발을 의뢰해 만들었다.

길이가 똑같은 면이 단 한 곳도 없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으로 적합하다.

올해 파라미타 연합수련회에서 200여명의 청소년 4명이 한조를 이뤄 20분 안에 퍼즐을 맞추도록 실현해본 결과,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인내심, 창의력 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맞추는 만(만)자 퍼즐. 수학적으로 길이가 같은 면이 한 곳도 없다.

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직접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놀이 도구 제작에 나선 사람도 있다.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는 자체 제작한 ‘팔상성도 카드’를 놀이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팔상도(부처님의 인상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한 그림)를 새롭게 해석, 카드에 만화로 그려 넣었다.

‘팔상성도 카드’는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내 이 카드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하거나, 여러 벌의 카드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불했나’를 맞추는 ‘불교응용 클루(Clue)’ 보드게임도 있다. 어느날 한 사미가 홀연히 성불했



(사)동원인 만들어 지난해 연꽃문화제에서 배포한 3~6세용 어린이 불교교구 ‘반야심경 퍼즐’.

다. 게임 참가자들은 이 사건을 맡게 된 탐정이다. 대웅전, 비로전, 산신각 등의 사찰 전각이 그려진 종이판과 성불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담긴 카드를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보드게임 열풍이 한창 불던 2000년대 초, 당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였던 김중훈 씨가 ‘클루(Clue)’라는 보드게임에서 착안해 이 같은 응용 게임을 개발했다.

어린이포교단체인 (사)동원(회장 지현)은 3~6세 아동들을 위한 ‘반야심경 퍼즐’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유치원(원장 황옥재)의 경우 매년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재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불교교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이 저마다 불교교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포교효과’ 때문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현장 지도자들은 교리중심의 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라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고 보고 느끼며 갖고 놀 수 있는 놀이도구와,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입 문의: 전국 교법사단 (02)454-1758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광명 금강정사 마애불학성회

창립한 지 15년째인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원명) 마애불학성회. 1991년 9월 금강정사 법당 한쪽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마애불학성회는 현재 재적인원이 40여명 에 이른다. 15~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은 매주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2시 1부, 2부로 나눠 법회를 운영한다. 1부 행사는 지도법사 스님의 법문, 예불집전 등 법회 위주로 꾸며진다. 반면 2부에서는 청소년 불자들이 친목을 다지고 취미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스님은 말한다. 개인 수행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번씩 금강정사 신도들이 하는 3천배 기도정진에 청소년 불자들도 참여한다.

자기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법사스님의 지도 하에 포살법회를 개최하거나 학성회 회원들이 모두 동참해 둘러 앉아 자신의 고민을 돌아가며 터놓고 이야기하는 윤좌법회를 매달 한 차례씩 갖곤 한다.

원용 스님은 청소년 불자 지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불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꼽는다.



광명 금강정사 마애불학성회는 한달에 한 차례씩 윤좌법회 등을 갖고 수행정진을 철저히 한다.

문화활동으로 친목·신심 다져요

매일 한차례 봉사법회·삼천배 정진... 실천하는 믿음 '전통'

마애불학성회에서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풍물수업이다. 91년부터 꾸준히 학생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이어져 내려온 풍물수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풍물수업을 통해 사물놀이를 익힌 청소년 불자들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 제 등행렬의 선두에서 서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찰학생회 풍물패는 금강정사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그 밖에 생일법회, 야외법회,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형식의 법회도 개최한다.

마애불학성회는 특히 수행활동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편이다. 지도법사 원용 스님은 이에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쉬고 근처에 있는 해명양로원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봉사해 나간다. “학원을 다니고 수능을 준비하느라 바쁜 아이들이지만 시간을 쪼개 봉사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회”라고

다. 청소년들이 학성회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밑바탕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스님은 “수행활동을 통한 믿음의 확인”이 평소 청소년 불자들을 지도할 때의 지침”이라고 밝힌다.

비단 수행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월간 왕성한 청소년들의 모임답게 자체적으로 다양한 모임을 결성, 사찰 밖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강축구팀이 대표적인 예다. 사찰학생회가 끝난 후에도 축구를 하는 법우들끼리 모이고, 청년회와 틈틈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5년만에 부활한 수도권지역 사찰학생회 연합 체육대회에도 참석해 기량을 발휘했다.

이은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귀의상보호고, 발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이루어진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내 많은 신도들부터 아기를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수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존의 청운동 사옥은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 등 제반업무는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 새 주소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 편집국·광고국 6층, 관리부 10층

● 전화와 팩스번호는 기존 그대로이며
대표전화는 (02)2004-82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 - 12시, 오후 1시 - 3시(2차례)

■ 본 강좌일시 :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 오전반 :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 오후반 :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 1개월 전 과정 : 30만원(교재 10만원상당제공) ※ 본 강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문 의 전 화 : 011-9765-6999

■ 편자요법으로 치료 잘되는 증상 :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감기기침, 콧물, 코피, 경항통, 어깨결림, 담결림, 등줄기결림, 건통(오십견), 팔목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감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숙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교 앞 하차 도보 5분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